

“연말연시’ 전남서 다채로운 겨울축제 즐기세요”

전남도, 내년 1월까지 볼거리 제공
함평빛축제·담양 산타거리 등 풍성
5개 시·군서 해넘이·해맞이 행사도

전남지역 곳곳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겨울 관광객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 줄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의 전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빛과 예술의 축제, 겨울 자연과 꽃의 조화로운 정원축제, 서남해 바다와 어우러진 해넘이 해맞이 경관 등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5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진행되는 ‘함평 겨울밤 빛축제’에선 미디어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전광판을 통해 상영된다.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다채로운 경관 조명이 함께 어우러진 빛과 예술의 아트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축제 기간 매주 금·토요일 체험 부스와 먹거리 판매존을 운영하고, 토요일 저녁 콘서트와 EDM파티를 통해 관광객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신안에선 오는 13일부터 1월12일까지 1004섬 신안 분재정원에서 ‘섬 겨울꽃 축

제’가 열린다. 분재정원 내 3km에 이르는 애기동백 숲길에서 피어나는 4000만 송이의 애기동백꽃은 관광객들에게 활활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플라워월과 플라워 아치 등 포토존도 조성돼 겨울 정원의 매력을 더한다.

담양에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담양읍 중앙로를 ‘차 없는 산타거리’로 탈바꿈해 산타와의 만남 이벤트, 캐릭터 퍼레이드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야경 포토존과 지역특산물 활용 먹거리 판매 공간을 통해 오감이 즐거운 축제를 제공한다.

또한 12월31일과 1월1일에는 5개 시군

에서 2024년 갑진년을 마무리하는 해넘이 행사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순천, 여수, 해남, 진도에서 열리며 보성에서는 해맞이 행사만 개최된다. 특히 해남 땅끝 전망대, 진도 세방낙조 전망대, 여수 항일암, 순천 와온해변, 보성 울포해수욕장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만나는 해넘이·해맞이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각 시군마다 음악회, 불꽃쇼, 드론쇼, 떡국나눔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특색을 더하고 있다.

무안에서는 내년 1월20일부터 이틀간 해제면에서 겨울 송어축제를 개최한다. 메인 이벤트인 황금송어 잡기와 퀴즈대회, 송어초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판매행사를 통해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연말연시 전남에서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들이 많다”며 “많은 관광객이 전남의 축제장에서 겨울의 낭만을 즐기고 따뜻한 추억을 선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시, ‘광주G-패스’ 교통카드 디자인 확정

시민 온·오프라인 설문·전문가 자문
광주문화관광 캐릭터 ‘오매나’ 선정

‘광주G-패스(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디자인이 확정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온(ON) 설문과 오프라인 투표 등 시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광주G-패스 카드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카드 디자인은 광주문화관광 캐릭터인 ‘오매나’가 다양한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광주가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G-패스 카드는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편의점 등 한페이카드 지정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온·오프라인 설문에는 광주시민 6012명이 참여했으며, 선호하는 카드 디자인을 선정하고 댓글을 통해 카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당초 어린이용과 청소년용 카드는 캐릭터형으로 선정하고 성인용 카드는 글자형 카드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대다수 시민이 어린이·청소년·성인 구분 없이 캐릭터형 카드로 선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연령구분 없이 종합 득표수가 가장 높은



광주 G-패스 교통카드 디자인. 광주시 제공

캐릭터형 디자인 2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전문가 자문을 거쳐 광주G-패스 카드 디자인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대중교통비를 할인·환급하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광주G-패스’를 202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생년월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내년부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어린이는 100%, 청소년은 50% 할인받는다.

19살 이상 성인에 대한 광주G-패스 지원은 K-패스와 연계해 추가 환급된다.

성인은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https://korea-pass.kr)에 회원 가입하고,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64%)을 다음달에 돌려받는다.

노병하 기자



북구 문학의 밤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주민 등이 10일 광주 북구 비엔날레 광장에서 열린 한강 노벨문학상 시상식 기념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와 함께하는 ‘북구 문학의 밤’에서 LED 풍등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여수 한우농장서 림피스킨…도, 긴급 방역

“통제·소독 등 확산 차단 주력”

전남도는 여수 소재 한우농장에서 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확산 차단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발생농장은 한우 45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8일 공수의가 소 1마리에서 피부결절(혹) 등 임상증상을 확인해 여수시에 신

고했다. 전남도는 의심증상 신고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지난 9일 오후 9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가족위생 방역지원본부 조동방역팀(2명)과 도 현장조사반(2명)을 해당 농장에 투입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양성 축격리 및 임상관찰, 소독 등 긴급방역조

치를 취했다.

전남도는 최근 개정된 방역조치에 따라 양성축의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장 내 격리 후 28일간 임상관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 바 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공동방제단 99개단 및 시군 보유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5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소 사육농장 27호에 대해 이동제한과 임상예찰을 진행했다.

오지현 기자



무안에서 출발하는 색다른 해외여행, 이제는 무안에서 편하게 떠나자!

문의/예약 : 1522-1901

무안출발 도쿄/나리타 2박 3일



2024.12.02~2025.03.26(매일출발)
★오후(17시)출발★ 알찬 2박 3일 여행!

- ▶ 도쿄+요코하마 여행 : 999,000~
- ▶ 도쿄+하코네 온천여행 : 1,019,000~
- ▶ 도쿄 골프 36H : 1,289,000~

무안출발 씨엠립(캄보디아)관광



2024.12.29~2025.03.16(목/일출발)
목요일출발(3박4일)/일요일출발(3박5일)

- ▶ 씨엠립+양코르왓 관광 : 999,000~
- ▶ 골프36H+양코르왓 관광 : 1,449,000~
- ▶ 골프 ONLY 54H : 1,499,000~

무안출발 하노이(베트남)관광



2024.12.15~2025.03.26(수/토출발)
수요일출발(3박4일)/토요일출발(3박5일)

- ▶ 옌뜨+하롱베이 관광 : 849,000~
- ▶ 하노이+크루즈+옌뜨 : 1,249,000~
- ▶ 골프 ONLY 54H : 1,299,000~